

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9B 강의 - 마태복음 21-22장: 승리의 입성과 비극적 여파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 9b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소위 승리의 입성이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다들 내용이 많아서 다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펼쳐진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정복한 왕이 영광과 권세의 온갖 은총을 뽐내며 도시에 당당히 입성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입성에는 어딘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왕은 왕실 예복도, 화려한 군사 복장도 아닌, 간소한 차림새입니다.

그는 날렵한 군마가 아니라 허세 부리지 않는 어린 당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온순하지만 군국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등장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예루살렘 전체가 그의 정체를 두고 어리둥절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입성은 권능과 영광이라는 덧과 겹손이라는 이미지를 결합합니다. 그분의 사역 전반에 걸쳐, 그분의 가르침은 고양된 겹손과 축소된 교만의 본보기입니다. 성구 사전에서 이 단어들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소위 승리의 입성은 예수님 나라의 뒤바뀐 가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함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셨는데, 그 패러다임은 교만한 통치가 아니라 겸손한 섬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다른 모습,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려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군중의 함성에는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함성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적 언어로 묘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 메시아적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글을 올바르게 인용하지만, 그들의 메시아를 정복한 군사 영웅을 본떠 잘못 모델링합니다. 제자들조차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26년, 여러분 사이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리의 입성은 앞서 말했듯이 비극적인 입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21장 12-17절에 나오는 성전의 정화 또는 청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압제적인 로마 점령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위선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상 유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시는 대신,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인 성전과 그 기득권층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전락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바깥뜰에서의 상거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셨는지, 아니면 종교적 순례자들의 순수한 종교적 동기를 이용한 파렴치한 탐욕에 맞서 행동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그분의 주요 활동이 위선에 맞서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전 선지자들처럼,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의 기존 종교의 부패에 맞서, 그리고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은 낮아지는 종말론적 역전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내포된 기독교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을 고치시고, 그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모두 12장 6절에서 말씀하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찬양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실 때, 그분은 암묵적으로 그 시편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11장 25절에 따르면, 그러한 통찰력은 인간의 지성이나 직관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의 기존 위계질서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성전 정화가 재건인지 파괴인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교정이나 정화의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복음서에 묘사된 행위들은 성전의 제사 의식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기생하는 상업 활동과 대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을 간섭하지 않으셨지만, 재정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을 간섭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성전과 제사장들의 부패를

흔히 비난했지만, 그러한 신탁은 제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남용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이사야 28장 7절, 예레미야 6장 13절, 에스겔 8장부터 10장, 호세아 4장 4절에서 6절, 미가 3장 11절, 스바냐 3장 4절을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는 신구약 중간기의 후기 유대교 문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는 성전의 부패에 대한 개혁과 그 부패가 지속될 경우 다가올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성전의 부패에 대한 항의와 성전의 미래 파괴에 대한 예언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23장 39절에 따르면 회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에 따르면 종말론적 성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진정한 예언 활동은 심판과 소망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현재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에서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사건의 성취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스가랴 14장 21절의 가장 유력한 번역으로, 주님의 집에 상인들이 더 이상 없을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상징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 성전에서 상업 활동을 몰아내셨습니다. 이 두 행위는 각각 예수님의 왕적 역할과 예언적 역할을 상징합니다.

예언적 역할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일에서도 계속되는데, 이는 모든 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중 가장 이상한 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구약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음, 죄송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구약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예언적 행위 비유들이 종종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꾸짖거나 저주하는 일은 두 가지 신학적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성전이 최근에 깨끗해진 후 열매를 맺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독자들은 아이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합니다(21:15, 16). 그들은 예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도자들의 무익함은 마태복음에서 줄곧 강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지적되지만, 예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난은 23장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연약한 제자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미약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책망하셨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전받습니다.

이 교훈이 성전과 관련된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적절합니다. 성전은 21장 13절에서 만국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며 이사야 56장 7절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이 두 교훈을 함께 제시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익함과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의 잠재적인 결실을 대조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요한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드린 권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거듭거듭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7장 28, 29절, 9장 1 절부터 8 장 12절, 6장 8, 28, 38, 41절과 42절, 1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6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군중보다 덜 예민합니다. 군중조차도 요한과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질문은 적대감과 아마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의 흐름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감히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곧 요한의 권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21:25). 그런 다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그들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21:28-31). 그들의 죄는 둘째 아들처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을 대표하는 첫째 아들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들의 회개가 지도자들의 회개에 영향을 미쳤어야 했습니다(21:32).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동은 성전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12장 6절에 따르면,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말은 그 이후의 행동으로 뒤집힐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성전 관리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 직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악명 높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구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악명 높은 죄인들의 불의한 신분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자신의 의로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의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7장 2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기독교 주석가들은 두 아들의 비유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순종한 첫째 아들은 이방인을, 처음에는 약속했지만 나중에 거절한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맥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 즉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문맥적 초점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대조되는 당사자들을 유대인 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내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요한과 예수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 역전을 제시합니다. 기득권층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지위도 없는 회개한 사람들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얻은 대체자들도 권리를 박탈당한 이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이방인이 우세한 교회에 주는 교훈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2절에서 가르쳤듯이, 유대인 기득권층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장 33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악한 소작농의 비유로 넘어가 보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포도원과 그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한 사건이라는 구약의 두 가지 주제와,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으로서의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반역의 정점으로서의 예수님의 거부라는 새로운 주제를 결합합니다. 이 비유는 21장 23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연장선입니다.

그의 권위는 포도원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반에 걸쳐 그분의 사자들을 끊임없이 거부해 온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정도로 인내하십니다. 율법에 따른 열매나 올바른 삶은 하나님 백성의 이러한 지도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백성에게 계속 권위를 행사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결국 마지막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농부의 비유는 구원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수난 예언들만큼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에서 분명히 비롯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불충실함을 분명히 비난하며, 잘 경작된 포도원이 어떻게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는 사랑하는 자가 비옥한 산을 유망한 포도원으로 변화시키는 여섯 단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의 여섯 단계와 매우 유사하지만, 마태복음 21장은 그 순서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가 21장 43절에서 왕국을 취하고 왕국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주석은 마태복음 21장 43절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과 주로 이방인 교회로의 대체를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대한 권한을 빼앗길 완강한 농부들은 어떤 집단을 상징합니까? 비유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농부들이 아니라 포도원으로 상징되는데, 농부들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비유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과 예수님께 대한 적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21:45).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21:35-39에 나오는 완강한 농부들입니다. 21:42에 나오는 돌을 버린 건축자들, 그리고 21:44에 나오는 돌에 의해 부서지고 가루가 된 자들, 이 비유에 나오는 완강한 농부들이 오늘날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일시되는 것은 다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21장 43절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왕국의 권세를 빼앗긴다고 말한다면, 본문은 왕국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나라, 즉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를 대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왕국이 누구에게서 빼앗겼는지에 대한 앞선 논의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21장 43절의 대명사 "너희"는 풍성한 포도원이 아니라 완고한 농부들을 비유적으로 선행사로 사용합니다.

다음 문맥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믿었음이 분명합니다(21:46). 따라서 이 구절을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입니다. 마태가 21:43에서 '민족' (헬라어로 '에트노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역시 이러한 견해를 명백히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복음서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방식을 살펴보면, 오히려 마태는 열매를 맺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땅 주인에게 수확물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농부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존재이지, 민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왕국과 그와 유사한 다른 신자들, 즉 예수님을 토라의 궁극적인 스승으로 여기는 자들은 왕국 윤리를 실천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루살렘 종교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가 다뤄집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는 마태가 유대 종교계에 대한 고발의 일부로, 이스라엘을 이끌 권한이 마태가 속한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에게 박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민족은 미티 공동체를 종말론적 메시아적 남은 자로 묘사하며, 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현 종교계를 대체하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며,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은 대체론적 의미, 즉 하나님의 계획에서 더 이상 권한이 없는 유대인을 이방인이 계승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해석은 교회 역사에서 안타깝게도 반유대주의를 뒷받침해 왔으며,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에 종종 연루되는 신학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해석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은 결실 없는 예루살렘 종교계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끄는 풍성한 미티안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로 왕국의 지도력이 내부적으로 이양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계속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지평을 넓혀갑니다.

이는 신약 성경 신학의 더 큰 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적 유대인 남은 자들은 초기 교회의 핵심이 됩니다.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인도함으로써 확장되지만,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 온다(요한복음 4장 22절, 그리고 다른 많은 구절들).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고, 마태가 그 배경을 지리적으로 설정한 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중요한 승리의 입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들을 묘사하는데,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눈먼 자와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기도의 실제적 교훈이 됩니다.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지만, 그들은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다음에는 두 아들을 둔 한 사람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을 정죄한다는 것을 깨닫고 무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22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음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2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서사적인 서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22장 2절부터 13절까지이고, 그 후 22장 14절에 전반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비유 자체는 왕의 네 가지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은 2절, 두 번째 순환은 4절, 세 번째 순환은 7절, 네 번째 순환은 11절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혼인 잔치 비유는 여러 주제를 공유하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소작농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 잔치에 대한 이 비유는 원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놓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실패든, 소작농의 실패든,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실패든, 심지어 이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실패든 말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그의 신하 이스라엘을 아들 예수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신하 이스라엘이 왕의 신하들을 죽이려 하지 않자, 왕은 군대를 로마로 보내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큰길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즉, 이방인들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 잔치 손님, 즉 위선자는 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에는 일리가 있지만, 이 비유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의 구원적 역사적 전환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는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조롱하고, 죽인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이 혼인 잔치 비유에 대해 살펴보면, 22장 14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은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비유 전체의 요점을 요약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무관심했을 뿐이지만, 225 다른 이들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가 전달되었지만, 응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참한 최후는 앞의 두 비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원을 더합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겉보기에 의롭든 그렇지 않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하는 자들의 끔찍한 최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2:11-13절은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지만, 이 사람은 혼인 잔치 초대에 응하여 연회장에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옷은 그가 진정으로 그곳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운명은 독자들에게 715-723년의 거짓 선지자들과 1342년의 무법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비유의 일부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난이 단순히 외부의 반대자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만족에 빠져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신의 승인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22장 15-22절에 나오는 세금 납부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21장 24절부터 22장 14절까지 유대인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의 근원에 대해 질문하는 데 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2:15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도전하는 세 차례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22 :15-34), 사두개인들(22:23), 그리고 헤롯 당원들(22:16)의 가르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중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22:46).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탁월한 답변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모두 당황하게 했습니다. 세리들과 친분을 쌓은 사람에게서라면 단순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예상되었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과 그보다 더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22장 11절에서 메시아적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에게서는 단순하고 부정적인 답변이 예상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인을 유대인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황제의 동전에 새겨진 비문은 틀렸습니다. 그는 신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질문자들은 신성모독적인 동전을 성전 경내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금의 정당성을 부인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고, 로마인들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확인함으로써 헤롯 당원들을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자들의 진심 어린 아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충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결혼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매우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과의 이 만남은 앞서 바리새인들과의 만남과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불신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다른 질문을 받지만, 그분의 대답은 그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과세라는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성경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5장 5절의 레비라테 결혼에 대한 계명을 고려하여 예수님께 내세 개념을 다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토라에 근거한 레비라테 결혼이 바리새인들의 내세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니면 단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맞서 자신들의 편에 서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단순히 이전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부활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켜 더 이상 성적으로 활동적인 존재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도 확인해 보세요. 성(性)은 초기 창조의 선함의 일부이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중생이나 22장 30절에 언급된 부활의 삶은 초기 창조의 이러한 측면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두개인들이 레위라테 율법을 인용하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특히 출애굽기 3장 6절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언약적으로 충성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부활을 의미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부활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교활한 반론을 죄스러운 무지와 잘못된 신학의 산물이라고 여기십니다. 데이비스와 엘리슨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2장 34절 40절에 나오는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대화에 관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7장 12절의 가르침을 연상시키는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율법과의 관계였는데, 이는 5장 17-48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율법 전문가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견해가 당시 사람들의 견해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율법과 대조시키지 않으시지만, 늘 그렇듯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라는 핵심을 짚어내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기본 원칙은 모세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과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다시 순종하도록 촉구하고자 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신약 성경 본문들도 사랑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며 이 주제를 반영합니다. 로마서 13:9, 10, 갈라디아서 5:14, 골로새서 3:14, 야고보서 2:8. 이 구절의 신학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신명기 6:5를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으로 부르심으로써 레위기 19:18의 기초로 여겨지기를 의도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신성한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게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합니다.

신중심적 또는 수직적 의무는 인간중심적 또는 수평적 의무의 기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십계명의 맨 처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진술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신명기 6장 5절만큼 중요할 수 있지만, 신명기 6장 5절의 기초에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없이는 신명기 6장 5절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현대 심리학 용어는 성경적 패턴을 완전히 뒤집는 듯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에 대한 결론 부분도 다윗의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려고 주도권을 잡으시지만, 단순히 마치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37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 즉 로마 세금의 타당성, 종말론적 추측, 심지어 근본적인 윤리적 의무조차도 이스라엘 역사의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들이 그분을 거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22:42). 하지만 진짜 질문은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이 확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22:43의 두 번째 질문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인간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인간 후손이라고 가정할 때, 다윗은 왜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의 신학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다윗 혈통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적적으로 태어나시고, 신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는 이전에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고 암시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승리의 입성 직후 시작된 예수님과 예루살렘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혼인 잔치 비유(22장 1-14절)는 21장 28절에서 시작된 일련의 비유 중 세 번째입니다. 세 비유 모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순종한 아들, 악한 소작농, 그리고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반항적인 신하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전개에 따라, 방금 논의했던 세 가지 논쟁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언어적 적대감을 비참한 최후로 이끕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를 더욱 부각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의 가르침을 불신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에게 한 그의 마지막 대답은 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메시아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아들이 신성할 때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스스로를 다윗의 후손이자 그의 높임받은 주님으로 밝힌 예수님에게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는 불길한 의미를 담고 중단되었습니다.